

# 작년 생산자물가지수 6.4% ↑ ... 10년만 최고

## 지수 수준 196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아 12월 유가 하락에 13개월 연속 상승세 주춤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가 6% 이상 뛰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1~12월 평균 생산자물가지수(잠정·2015년 수준 100)는 109.6으로, 1년 전(103.03)보다 6.4% 상승했다. 이는 2011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지수 자체는 1965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전 최고치는 2012년의 106.44였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클수록 생산자들의 판매 가격이 높아짐을 뜻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11월(113.23)과 유사한 113.22로 집계됐다.

지수는 11월보다 낮아졌지만, 전월 대비 변동률이 거의 0%에 가까워 한은은 '하락'이 아닌 '보합' 상태로 판단했다. 앞서 13개월 동안 이어진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9.0% 높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던 11월(9.8%)보다 소폭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지수는 서비스 부문에서 올랐으나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공산품 부문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부문별 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 공산품이 0.6% 내렸다. 이 중 석탄·석유제품(-6.7%)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화학제품과 제1차 금속제품이 0.6%씩 낮아졌다.

그러나 농림수산물(2.6%), 전력·가스·수도·폐기물(1.6%), 서비스(0.3%) 등은 올랐다.

특히 농산물은 5.2%, 수산물은 1.8% 올랐고, 음식점·숙박의 경우 1.0%, 운송은 0.5%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딸기(172.4%), 사과(26.4%), 물오징어(19.2%), 국제항공여객(3.7%), 떡(3.8%), 햄버거·피자전문점(3.9%) 등이 올랐다.

반면 돼지고기(-5.2%), 경유(-9.9%), 휘발유(-10.2%), 연화비닐모

노머(-16.6%), TV용LCD(-5.2%) 등은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 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원재료와 중간재가 0.1%씩 하락했지만, 최종재에 변화가 없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2월 총 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0.2% 내렸다.

2021년 연간으로는 국내공급물가지수가 8.6% 올라, 2008년(18.1%)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산출물가지수도 8.0% 뛰었다.

/연합뉴스



### 현대글로벌비스, 중고차 플랫폼 론칭

현대글로벌비스는 20일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오토벨'을 론칭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신뢰받는 딜러 구축과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중고차 딜러가 오토벨 회원 가입 때 소속 매매상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종사원증을 필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고차 매매 자격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고차 딜러는 현대글로벌비스의 분당·시화·양산 경매센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차량을 오토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인증된 경매회원을 통해 투명하게 유통된 차량을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현대글로벌비스는 전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각 중고차 경매센터의 데이터를 연동해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의 실매 물과 판매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 검색엔 네이트·구글 사용자 ↑

작년 국내 검색 애플리케이션(앱) 중 네이트와 구글의 사용자가 늘었고 다음과 네이버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아이지아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는 작년 1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주요 검색 앱의 한국 월간활성사용자(MAU) 증감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비교 결과 구글은 지난해 1월 2,926만 8,823명으로 작년 1월 2,926만 3,840명보다 304만 4,983명(10.4%) 증가했다.

네이트는 지난해 437만 4,713명으로 작년 1월보다 61만 6,110명(16.4%) 늘었다. 증가율 면에서 주요 검색 앱 중 가장 높았다.

구글과 네이트의 앱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뉴스와 검색이 편하다는 평가다.

이와 대조적으로 네이버의 MAU는 작년 1월 4,041만 4,450명에서 지난해 4,020만 4,804명으로 20만 9,646명(0.5%) 줄었다.

### 보험사들, 실손 상품 전환 외면

대규모 적자를 내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의 상품 전환을 외면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 14개 가운데 전환용 '4세대'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ABL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DB생명 등 4개 뿐이다.

나머지 10개 보험사는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보험료 부담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데도 가입 보험사에서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가입자는 1~3세대를 해지하고 4세대를 취급하는 다른 보험사에 신규 가입해야 한다.

## 중앙공원1지구 감사원 감사 청구

### 전아연 광주시회 "고분양가 등 특혜 의혹 해소"

특혜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이 됐던 중앙공원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20일 "분양가 산출 내역서와 부관사항 및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사업계획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시가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왔다"며 "시가 정보공개를 부실하게 해줘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광주시 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해장막걸리 신제품 출시

20일 광주신세계는 지하1층 푸드마켓에서 해장 막걸리가 출시한 '해장블루 15도'를 선보이고 있다. 해장막걸리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자란 유기농 매향과 찹쌀로 빚은 프리미엄 막걸리다.

/광주신세계 제공

## '4분기 수출' 광주 자동차·전남 석유제품 견인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전남은 석유제품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지역 수출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42억 9,900만 달러, 전남지역은 69.3% 증가한 120억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20.7%), 반도체(14.1%), 기계류(55.9%) 모두 전분기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주력산업 중 화공품(0.3%), 석유제품(13.0%), 철강제품(0.3%), 기계류(크레인, 1,152.2%)는 전분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반면, 선박(17.0%)은 감소했다.

광주지역 K-푸드 산업은 전분기 대비 20.1% 증가한 2,700만 달러, 전남지역은 전분기 대비 26.0% 증가한 1억 6,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의 백신 수출은 2020년 4분기부터 시작돼 2021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329.8% 증가한 2,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연수 기자

## 광주·전남중기청, 바우처 참여 청년창업가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인력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설립 3년 미만 기업으로,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전국 1만 1,000여개사 내외이며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혜린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 2017년 조사 이래 월간 최고치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

이어 기존주택 매각 지연(35.2%), 세입자 미확보(20.4%), 분양권 매도 지연(1.9%) 등의 순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같은 해

11월(29.3%) 대비 11.4p 급등했다. 이는 2017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예정이라 잔금 대출이 안돼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10명 중 4명 잔금대출 안돼 입주 포기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